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0-2018-0002264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2018년01월0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E04H 13/00 (2006.01) A01G 1/00 (2006.01)	우재동		
A61G 17/007 (2006.01) A61G 17/08 (2006.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17 (용암동)		
(52) CPC특허분류	(72) 발명자		
E04H 13/006 (2013.01)	우재동		
A01G 1/002 (2013.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17 (용암동)		
(21) 출원번호	10-2016-0081520	(74) 대리인	
(22) 출원일자	2016년06월29일	김원준	
심사청구일자	2016년06월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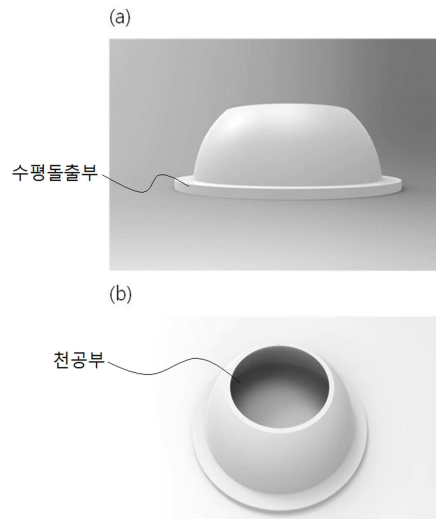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발명의 명칭 **미니어처 봉분**

(57) 요약

본 발명은 기존 묘 보다 크기가 작으면서 봉분 형상으로 제작되고, 묘 제작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미니어처 봉분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흙을 채울 수 있도록 내부가 비어 있는 볼록반구 형상이면서,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상부 일부가 수평방향으로 절단되어 천공부가 형성되어 있고, 지하 또는 상기 볼록반구 내부에 골분 또는 납골함이 매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 도4



(52) CPC특허분류

A61G 17/007 (2013.01)

A61G 17/08 (2013.01)

E04H 13/001 (2013.0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흙을 채울 수 있도록 내부가 비어 있는 볼록반구 형상이면서,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상부 일부가 수평방향으로 절단되어 천공부가 형성되어 있고, 지하 또는 상기 볼록반구 내부에 골분 또는 납골함이 매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어처 봉분의 전체 크기가 통상적인 봉분의 1/2 ~ 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어처 봉분의 볼록반구에 복수개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어처 봉분은 상부에서 볼 때 방사형으로 절단된, 복수개의 조립형 조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어처 봉분은 토기, 도기, 자기, 석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어처 봉분의 하단 외주면 전체 또는 일부에 수평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돌출부에는 복수개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어,

관통공을 통해 삽입된 앵커 또는 관통공을 통해 식재된 식물에 의해 봉분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한 미니어처 봉분의 설치방법에 있어서,

- (A)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내부에 상기 골분 또는 납골함을 안치시키고 구덩이를 되메우거나, 지면에 골분 또는 납골함을 안치시키는 단계;
- (B) 상기 (A)단계에서 골분 또는 납골함이 안치된 위치에 미니어처 봉분을 설치하는 단계;
- (C) 상기 미니어처 봉분의 내부에 흙을 채우는 단계;
- (D) 흙이 노출된 천공부에 식물을 식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설치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납골함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어처 봉분.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 [0001] 본 발명은 기존 묘 보다 크기가 작으면서 봉분 형상으로 제작되고, 묘 제작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미니어처 봉분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 [0002] 전통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유해를 관에 넣어 매장하게 되는데, 이때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리고 잔디를 심어 놓은 묘(봉분)를 만든다(도 1의 (a) 참조). 이후 '조상을 모시고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 명절이나 기일에 묘에 찾아가 제사를 지낸다.
- [0003] 이와 같은 매장과 봉분에 의한 장례문화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누적분묘기수가 2010년 기준 1435만기에 이를 정도로 묘가 증가하게 되었다(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특성상, 묘가 증가하면 잠식되는 국토 면적이 넓어지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진다. 또한 묘가 증가하면서 묘를 만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삼림을 파괴하고, 매장된 유해 또는 유골에서 발생하는 인(P)이 1그램 당 100톤의 물을 오염시킬 만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
- [000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묘지의 행정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묘지(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서의 매장을 금지하고, 개인묘지 면적은 30㎡ 이내, 집단묘지 내 분묘 면적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해를 화장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 [0005] 한편, 유가족 입장에서 매장 후 봉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묘 1기 당 연간 관리비용만 약 60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외에 위치한 묘까지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이 때문에 봉분 제작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화장 후 납골당에 봉안하거나 자연장(화장한 골분을 땅에 묻은 후, 잔디를 깔고 표지석을 세워놓거나 나무를 심는 방식, 도 1의 (b), (c) 참조)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1년에는 국내 화장률이 71.1%까지 증가하는 등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07).
- [0006] 그러나 전통문화에 대한 보수성이 높은 사람들이나, 전통적인 장례문화를 고수하는 특정 종교 신자들은 봉분 형상이 갖는 기념적인 의미 없이 납골당, 나무, 표지석 등의 형상으로 묘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매장지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컨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장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0007] 화장방식을 택하면서 봉분의 기념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중의 하나로 '봉분식 납골묘'가 있다. 봉분식 납골묘는 봉분 형상이면서 유해를 화장한 후 납골하여 봉안하는 것으로, 주로 조상들 혹은 가족들의 묘를 개장하여 하나의 묘에 같이 안치할 때 제작한다. 그 일례로 종래기술인 등록실용신안 제20-0267637호에서는 봉분(3) 내부에 다수의 단지 수납통(4)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문중 배치판(6)을 두어, 많은 납골함을 안치하면서 조상의 안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 2 참조). 또 다른 일례로 등록실용신안 제20-0406203호에서는 기존 선조묘의 테두리 부분을 절토하고 납골함 안치공간(14)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선조묘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납골함을 용이하게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 3 참조).

[0008]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기존의 봉분식 납골묘는 다수의 묘를 하나로 모아서 묘 안에 봉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대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묘는 묘의 기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묘 1기가 묘지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개별적으로 조상을 모시고자 할 때나 소규모 묘를 제작하고자 할 때는 적용하기 어렵다.

[0009] 따라서 크기가 작으면서 봉분의 형태를 유지하여 기념적인 의미도 갖는 새로운 묘가 요구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10] (특허문헌 0001) 등록실용신안 제20-0267637호
(특허문헌 0002) 등록실용신안 제20-0406203호

비특허문헌

[0011] (비특허문헌 00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2] 본 발명은 기존의 묘 보다 크기가 작으면서 봉분 형상으로 제작되는 미니어처 봉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13] 또한 본 발명은 묘 제작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미니어처 봉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4] 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흙을 채울 수 있도록 내부가 비어 있는 볼록반구 형상이면서,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상부 일부가 수평방향으로 절단되어 천공부가 형성되어 있고, 지하 또는 상기 볼록반구 내부에 골분 또는 납골함이 매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 [0015]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봉분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례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존의 납골당이나 나무 등에 비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나무, 잔디, 화초 등을 심어 꾸밀 수 있다.
- [0016] 또한 본 발명은 통상적인 봉분에 비해 1/2 ~ 1/5 정도로 크기가 작으므로 묘지 공간을 적게 차지하도록 할 수 있다.
- [0017]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하면, 묘 제작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기존보다 1/3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봉분 하나에 다수의 골분 또는 납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0018] 도 1은 종래의 다양한 묘의 형태를 나타낸 도면.
- 도 2, 3은 종래기술에 의한 봉분식 납골묘를 나타낸 도면.
-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미니어처 봉분을 나타낸 도면.
-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미니어처 봉분에서, 볼록반구에 관통공이 형성된 것을 나타낸 도면.
- 도 6의 (a)는 본 발명에 의한 미니어처 봉분에서, 상부에서 봤을 때 봉분이 방사형으로 절단된 형태를, 도 6의 (b)는 미니어처 봉분 조각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19]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내용과 범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이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한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시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변형과 변경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는 당연할 것이다.
- [0020] 본 발명은 크기가 작으면서 봉분 형상으로 되어 있는 미니어처 봉분에 관한 것이다. 미니어처 봉분은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내부가 비어 있는 볼록반구 형상이면서, 상부 일부가 수평방향으로 절단되어 천공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미니어처 봉분 제작 시에는 지하 또는 상기 볼록반구 내부에 골분 또는 납골함이 매립되는데, 이때 납골함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0021] 골분 또는 납골함을 매립한 후에는 볼록반구 내부에 흙을 채우고, 흙이 노출되는 상부 천공부에는 나무, 잔디, 화초와 같은 식물을 식재하여 봉분을 꾸미게 된다. 이때 미니어처 봉분을 실제 봉분과 더욱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볼록반구에 복수개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미니어처 봉분을 사용하여 상기 관통공에 잔디나 화초를 추가적으로 식재할 수도 있다(도 5 참조).
- [0022] 상기 미니어처 봉분의 전체 크기는 통상적인 봉분의 1/2 ~ 1/5일 수 있다. 통상적인 봉분의 평균 지름은 약 220cm 정도이므로, 미니어처 봉분의 평균 지름은 약 110 ~ 44cm 정도가 된다. 크기가 통상적인 봉분의 1/2보다 크면 봉분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미미하고, 1/5보다 작으면 기념적인 느낌이 반감되고 작은 외력에도 쉽게 훼손될 수 있다.
- [0023] 기존의 봉분은 단순히 흙을 쌓고 잔디를 심은 후 다진 것이기 때문에 눈이나 빗물에 유실될 수 있고, 동물의 습격을 받아 훼손될 수도 있다. 상기 미니어처 봉분은 이러한 외력이 가해져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강

도를 지닐 수 있도록 토기 또는 도기, 자기, 석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토기 봉분의 경우 점토로 봉분 형상을 빚은 후 800℃에서 초벌, 1200℃에서 재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해진다. 그리고 80~100년 정도 지나면 부식되어 자연적으로 봉분의 형태만 남게 된다. 이러한 토기 봉분의 강도와 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하고자 한다면, 토기 표면에 유약을 얇게 피복하여 도기 또는 자기 봉분을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토기 보다 강도가 훨씬 큰 석재의 표면을 깎아 석기 봉분을 만들 수도 있다.

[0024] 한편, 미니어처 봉분은 통상적인 봉분을 축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옮기기에는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봉분을 설치 장소까지 이동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기 미니어처 봉분은 복수개의 조립형 조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봉분 제작 시 부피가 작고 가벼운 봉분 조각을 모 설치 장소까지 옮긴 후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0025] 상기 조각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으나, 미니어처 봉분의 상부에서 볼 때 방사형으로 절단된 것이 좋다. 도 6의 (a)는 조각의 갯수에 따른 절단 형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6의 (b)는 봉분을 2조각으로 나누었을 때의 조각 형태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미니어처 봉분을 합장묘로 사용할 경우 골분 또는 납골함을 추가로 안치할 때마다 봉분을 분리해야 하며, 특히 전통적인 장례문화 중에 '좌남우여(左男右女)', 즉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모시는 관습을 따른다면 안치 위치도 중요할 수 있다. 이때 봉분 조각이 방사형으로 절단된 형태이면, 추가적으로 골분 또는 납골함을 안치하고자 할 때 안치하고 싶은 위치에 있는 봉분 조각만 분리했다가 골분 또는 납골함을 안치한 후 다시 조립할 수 있다.

[0026] 한편, 미니어처 봉분의 하단 외주면 전체 또는 일부에 수평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어, 미관을 더 좋게 하거나 봉분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수평돌출부는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하에 묻힐 수도 있다. 수평돌출부를 사용하여 봉분을 고정시키고자 한다면, 그 자체로 두어도 좋으나 수평돌출부에 복수개의 관통공을 형성하여 관통공을 통해 앵커를 삽입하거나 나무, 잔디, 화초와 같은 식물을 식재하여 고정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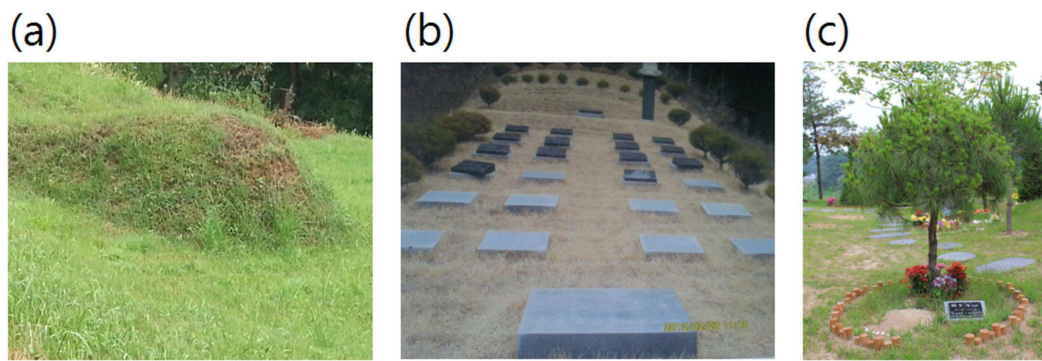
[0027] 본 발명은 또한, 미니어처 봉분의 설치방법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0028] 먼저 (A)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내부에 상기 골분 또는 납골함을 안치시키고 구덩이를 되메우거나, 지면에 골분 또는 납골함을 안치시킨다. 이후 (B) 상기 (A)단계에서 골분 또는 납골함이 안치된 위치에 미니어처 봉분을 설치한다(일체형 봉분을 세우거나, 복수개의 봉분 조각을 조립하여 설치함). 그 다음 (C) 상기 미니어처 봉분의 내부 빈 공간에 흙을 채우고, (D) 흙이 노출된 천공부에 식물(나무, 잔디, 화초 등)을 식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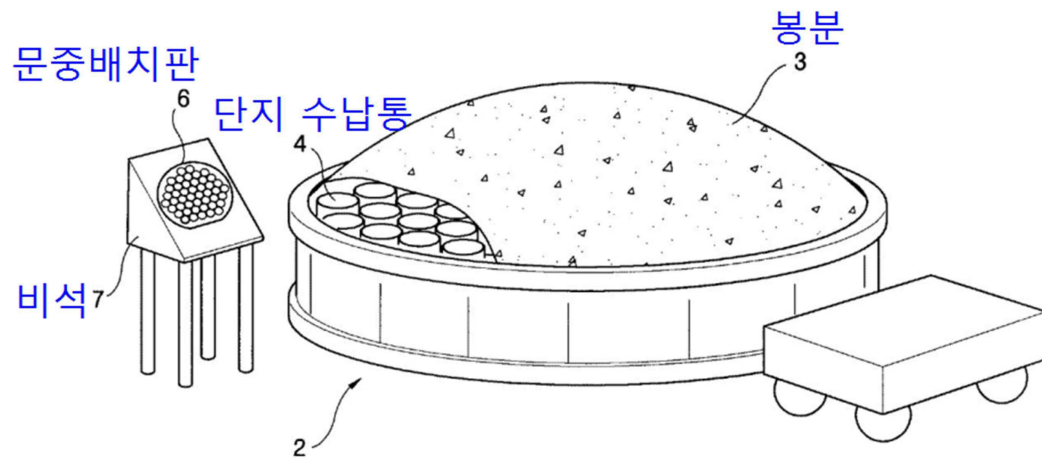
[0029] 이때 볼록반구 외면에 복수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미니어처 봉분을 사용한다면, 상기 (C)단계 이후에 볼록반구 관통공에 식물을 식재하는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수평돌출부에 복수개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미니어처 봉분을 설치할 경우, 상기 (B)단계 이후에 수평돌출부 관통공에 앵커를 삽입하거나 식물을 식재하는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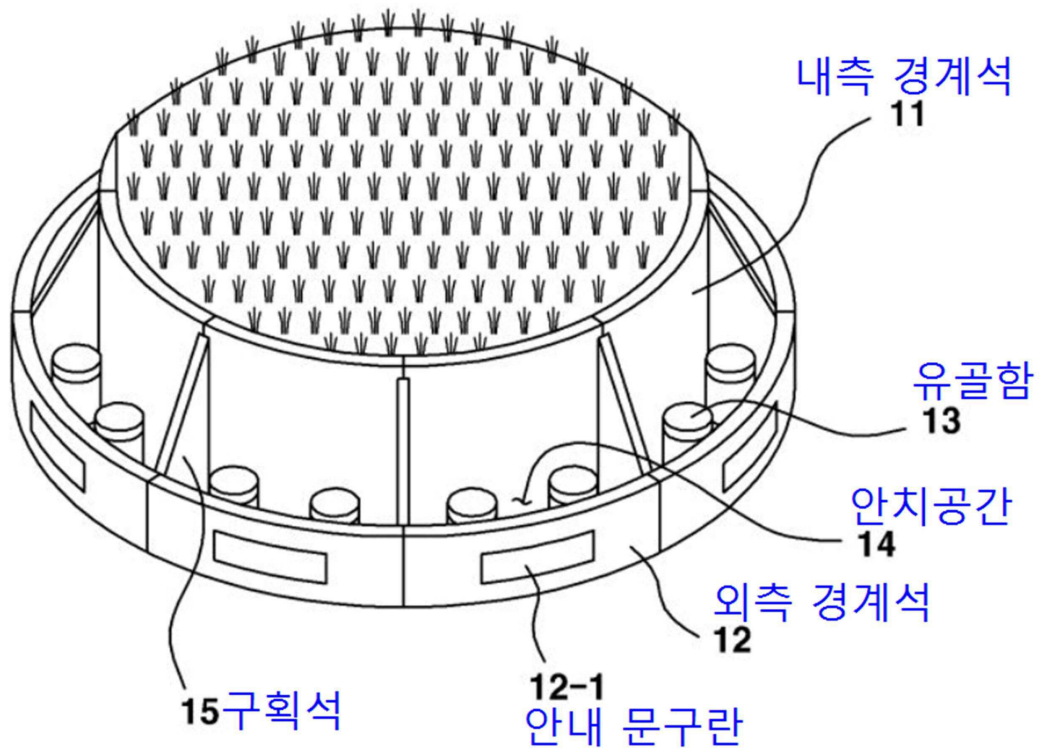
도면1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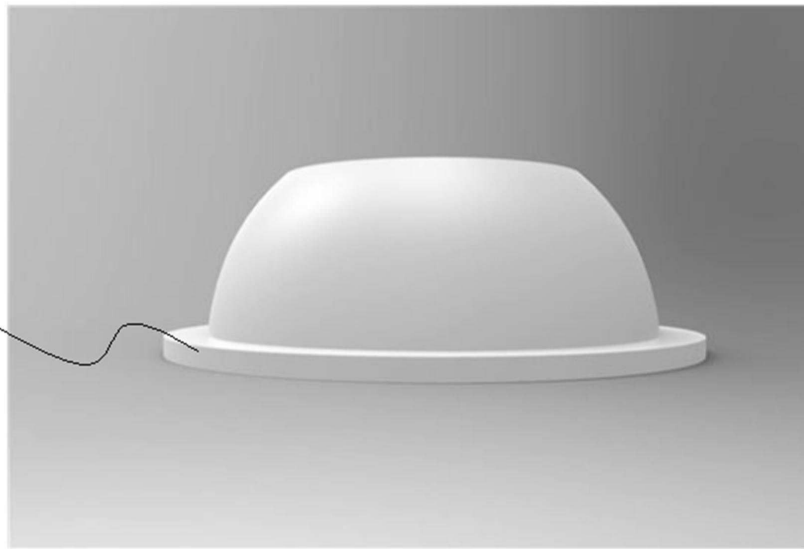
도면3



도면4

(a)

수평돌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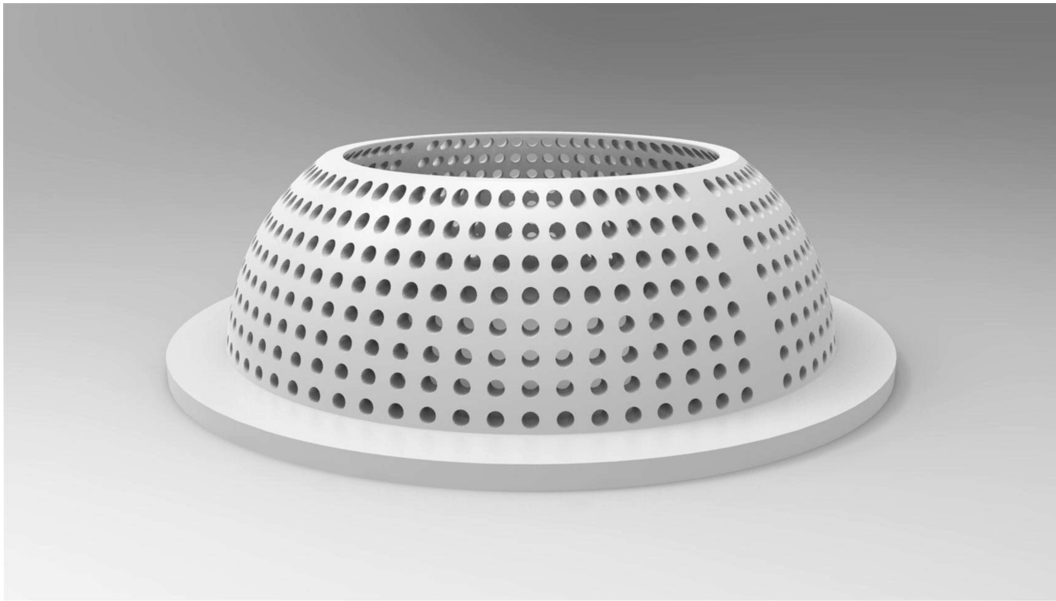


(b)

천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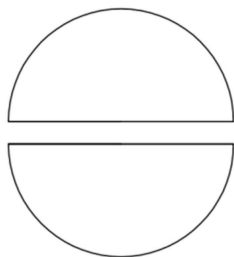


도면5



도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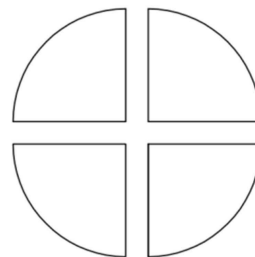
(a)



2조각



3조각



4조각

...

(b)

